

관객들, 고양이에 마음을 빼앗기다

CATS 뮤지컬 '캣츠' 한국어 버전 리뷰

메모리 등 주옥같은 명곡 '감동'

지난 21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캣츠' 한국어 버전을 관람한 관객들은 고양이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특히 '캣츠'가 전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관객들은 화려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세계적 뮤지컬을 직접 관람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공연 관람 안내 멘트에 이어 불이 꺼지자 객석은 잠시 침묵, 객석 이곳저곳에서 고양이들이 출몰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지는 스톱 무바리 고양이들의 완벽한 앙상블은 관객들을 '유쾌한 고양이 월드'로 데려가는 초정장이었다.

'오페라의 유령' 등을 만든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캣츠'의 매력은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다. 설명이 필요 없는 '메모리'를 비롯해, 마법사 고양이 등장할 때 나오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 '스킵블샬스' 등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옥주현·김진우 열연

T.S 엘리엇의 '저해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원작으로 한 '캣츠'는 고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늙은 극장 고양이 거스가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를 부르는 대목은 요즘의 우리 사회 풍경을 보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지고, 역경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자벨라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1부가 끝난 뒤 중간 휴식 시간. 본격적으로 고양이들과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의 고양이들은 좀 더 대답해졌다.

통로에서 재통을 부리던 외국산 고양이들과 달리 한국 고양이들은 객석 사이 사이를 파고들며 관객들에게 적

극적으로 다가와 갖은 재주를 부렸다. 배우들의 춤과 노래는 외국 오리지널 캐스팅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 발된 배우들은 긴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면서 고양이로 완벽 변신했다.

한국어 감정 이입 쉬워

역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배우는 럽 텡 터거 역의 김진우. 이미 서울 공연에서 '캣츠'가 낳은 최고의 스타로 주목받았던 김진우는 화려한 골반 윙키기 등 춤솜씨와 노래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극을 이끌어가는 명커스트랩 역의 홍경수는 매력적인 보이스와 안정적인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리자벨라 역의 옥주현은 극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메모리'를 통해 가창력을 뽐냈다.

'한국어 버전'의 가장 큰 매력은 자막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 극의 몰입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특히 늙은 그리자벨라가 처음 등장할 때 압코양이들이 부르는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 등 트윈 탭포의 곡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말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 감정 이입이 훨씬 쉬웠다.

옥주현, 대성, 김진우 등이 출연하는 광주 공연은 오는 4월 21~2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12만원~5만원.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으로 보는 재일교포 차별의 역사

'하정웅컬렉션-여원의 세계'전 광주시립미술관 24~7월12일

재일교포들의 차별의 역사가 담긴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24~7월12일까지 '하정웅컬렉션-여원의 세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영암 출신 재일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씨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씨는 지난 1993년부터 이우환 작품 20여점 등 3천여점의 작품을 미술관측에 기증했다.

전화황제 등 재일동포 작가와 강연국, 홍성담씨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재일동포 작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일 근현대사의 생생한 아픔과 일본 현지에서 이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차별과 외로움을 표현했다.

채준씨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무표정한 표정을 그린 '아기 없는 엄마와 엄마 없는 아기'를 전시한다. 을씨년스럽게 낫달과 하늘을 표현해 여인의 슬픔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광택씨의 '안개 낀 봄날'은 집을 감싸고 있는 안개를 배경으로 귀가하는 부부의 모습을 표현했다. 집에 홀로 남겨져 책을 읽는 아이를 통해 꿈을 잃지 않고 힘든 현실을 견뎌내는 재일교포들의 일상을 담았다. 문의 062-510-01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채준 작 '아기 없는 엄마와 엄마 없는 아기'

"문화유산 통합기록 시스템 구축을"

전남대 천득염 교수 서울서 토론회 발제

문화재 유형을 실측해 기록, 보존하는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려면 범국가적인 문화유산 통합기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사진)는 2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문

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 '문화재 원형보존과 기록화사업의 의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천 교수는 "기록화사업은 국가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이를 위해 ▲문화유



산 기록화사업의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는 작업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기록화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는 작업 ▲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계와 연동 등을 주문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부서사 무량수전 등 약 570건의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마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5월 창단 공연

25일 서울서 워크숍 공연

한국과 아시아 11개국가의 전통악기만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이하 전통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창단 공연을 갖는다.

전통오케스트라 창단을 준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3일 "전통오케스트라 창단 공연이 오는 5월 25일 열릴 예정이며 같은날 31일 열리

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특별 공연을 통해 공식무대에 데뷔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본격적인 창설 준비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작곡가와 연주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케스트라 창설 준비 합동 워크숍을 진행중이며 25일 서울 구로아트밸리에서 다문화 가정 초청 특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3월 9~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아세안 전통음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활동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의 60여개 전통악기 오케스트라를 2012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을 주무대로 활동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린던악사거리 ♥에메1544-0600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빌딩 4층) 해남점 (무의역관동점)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하미 시네마 진다후문 하이포박스 ☎ 267-7777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800♥
1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최고등급 2관 작전 (18세) 3관 적벽대전2 (15세)/말리와나 (12세) 4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 (전제) 5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6관 마린보이 (15세)/작전 (18세) 7관 핸드폰 (18세)/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8관 위남소리 (전제) 9관 핸드폰 (18세)	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체인질링 (청소년관람불가) 3관 마린보이 (15세) 4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5관 알파북/생화점 (청소년관람불가) 6관 데스페로 (전제)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1관 말리와나 (12세) 2관 과속스캔들 (12세)/작전명 발키리 (12세)/유감스러운도시 (15세) 3관 핸드폰 (18세) 4관 핸드폰 (18세) 5관 데스페로 (전제)/적벽대전2 (15세) 6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 (전제) 7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작전 (18세) 8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마린보이 (15세) 9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10관 작전 (18세)	1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 (전제) 2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마린보이 (15세) 3관 핸드폰 (18세) 4관 위남소리 (전제) 5관 말리와나 (12세) 6관 작전 (18세) 7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1관 말리와나 (12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잉크하트 (전제)/세븐파운즈 (15세) 4관 유감스러운도시 (15세) 5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작전명 발키리 (12세)/마린보이 (15세) 8관 적벽대전 (15세) 9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10관 작전 (18세)	1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작전 (18세) 4관 말리와나 (12세) 5관 마린보이 (15세) 6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www.entercinema.co.kr *널고 편안 북나북의 주차장 300대 *금로 살아생전	*초남 최대 주차장 *백일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개관) *점심 상영중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ARS 전화예약 1544-0070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파스너트 시너스 (오전 11시~오후 11시)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385 메일 실야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8-5757 *하미 북점 282-0825 *하미 골프장 251-5080 *하미 당구장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227-1960